

Jeonbuk Institute 20151116 vol.146

ISSUE BRIEFING

전라북도 농촌일자리의 새로운 기회: 창조산업과 복지분야 창업

이민수_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세길_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중섭_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C O N T E N T S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15년 11월 16일 vol.146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일자리의 새로운 기회: 창조산업과 복지분야 창업

1. 전라북도 농촌 고용 현황과 특징
 - 1) 농촌인구 변동 현황
 - 2)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 현황
 - 3) 전라북도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
2. 농촌 일자리 창출 유형과 사례
 - 1) 농촌지역 고용변화의 시사점
 - 2) 선진국의 농촌고용 시사점
3. 농촌 일자리의 새로운 기회 : 창조산업과 복지분야 창업
 - 1) 농촌창업 활성화 방안
 - 2) 복지분야 창업활성화 과제
 - 3) 창조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과제

전라북도 농촌일자리의 새로운 기회: 창조산업과 복지분야 창업

■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비농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전라북도의 농촌인구는 2013년 581천명에서 2033년 396천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2017년까지 스타 벤처 30개를 육성하고, 2020년까지 신규 창업 1800개소, 12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 현황

- 농업부문 취업자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비농업부문은 크게 증가
 - 농업고용 : 2013년 현재 13만 9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8만 4천명이 감소
 - 비농업고용 : 2013년 현재 17만 3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4만 1천명이 증가
- 보건·복지산업은 농촌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며, 동부권 등 농산촌 지역의 일자리가 더 크게 증가
- 창조인력의 핵심산업인 전문기술서비스업과 예술여가서비스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고용창출 산업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음

■ 농촌지역 복지·문화 분야 창업활성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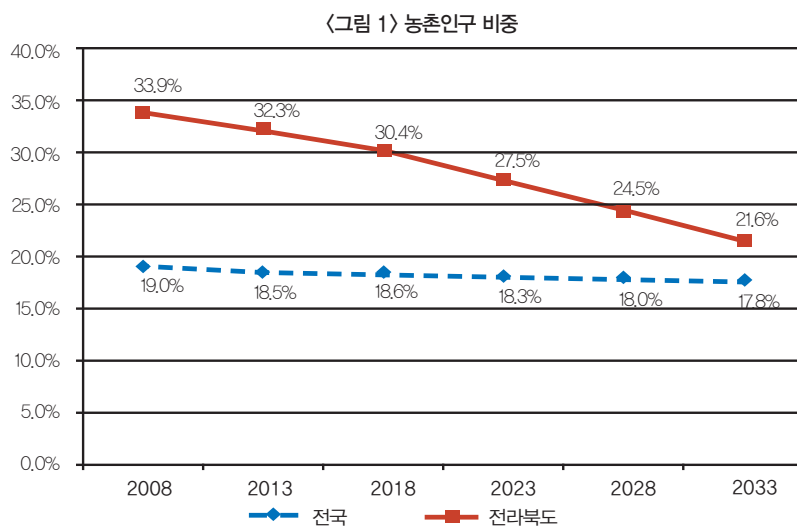
- 과제 1. 농촌창업지원 체계 구축
 - 농촌창업지원 통합체계 구축 : 농촌창업 교육의 효과성·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도차원의 조정기능 활성화, 창업지원기관 협의체계 구축, 역할분담 등 통합적 농촌창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초기 사업안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부분의 농촌 소규모 사업체는 사업시작 3년 내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업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과 개입 필요
 - 귀농인 연계 창업활동 지원 : 귀농인은 지역내외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보, 지역 내 파트너십 활동, 중소기업체 창업을 통해 농촌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 강화 : 예비 창업자 육성 정책을 도입하여 도의 창업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 도입
- 과제 2. 보건·복지 분야 창업 활성화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기존 복지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 가점제 도입으로 창업 유도
 - 농촌지역 협동조합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개선 :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직업훈련을 통한 적정 인력 공급
- 과제 3. 예술·창조 분야 창업 활성화
 - 문화복지 서비스인력 일자리 확대 : 문화이용권사업(2015년 전북예산 51억 8900만원)을 연계한 문화복지 서비스인력 창출 및 지역 내 문화동호인을 중심으로 '예술강사' 육성 및 활동 지원
 - '상설공연' 개발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 지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스토리를 연계하고, 지역관광장소(전통시장 등)와 연계한 공연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주민이 상설 운영
 - 도시 예술인의 유입 전략을 통해 '예술(인)마을'을 조성 : 세계 최초의 책마을 헤이온와이(Hay-on-Wye),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처럼 도시예술인·예술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
 - 농촌(세시풍속)체험, 캠핑, 예술카페 등 연계된 농촌 '문화창업' 유도 : 최근 청년농부들에 의한 농촌체험과 문화·여가 연계형 농촌창업이 부상하고 있음

1.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 현황과 특징

1) 농촌인구 변동 현황

□ 일자리부족은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 일자리 부족은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다시 주민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초래
- 읍·면 중심지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업체 감소 전망
 - (2008) 73,827개 → (2019)55,382개 : 11년간 업체 수 25% 감소 예상
- 전라북도의 농촌인구는 전국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농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 비농업 부문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표 1〉 전라북도 인구 및 농촌인구 추계¹⁾(단위 : 천명)

구분	2008	2013	2018	2023	2028	2033	연평균 증감률 ('08~'33)	
전국	전체	48,949	50,220	51,141	51,791	52,131	52,060	0.25%
	농촌	9321	9300	9517	9462	9378	9288	-0.01%
전북	전체	1,788	1,798	1,803	1,811	1,822	1,831	0.10%
	농촌	606	581	548	499	446	396	-1.69%

□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청년일자리 활성화 방안 발표(2015. 6. 2)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윈스톱 창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술·자본·시장 진출' 3박자 지원으로 농식품분야 창업 촉진

1) 농촌인구는 '성주인.엄진영.박유진.정규형. (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 전체 인구는 통계청(KOSIS) 장래인구추계 활용 (중위 시나리오 추계치 사용)

- 2017년까지 스타 벤처 30개를 육성하고, 2020년까지 신규 창업 1800개소, 12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2)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 현황

□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은 고용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10%이상 높으며,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현재 전라북도 농촌지역은 실업률이 2%대 이하로 완전 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은 전주, 익산 등의 도시지역보다 진안, 무주 등 농촌지역일수록 낮으며, 고용률은 이와 반대로 농촌지역일수록 높음
 - 전주, 익산, 군산 등 대도시권은 55%이하의 낮은 고용률을 나타냄
 - 진안, 무주, 장수 등의 산간 농촌지역은 68%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냄
 - 이처럼 고용률의 경우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 고용상태가 양호한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임

〈표 2〉지역별 고용률과 실업률(2014년)

행정구역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	63.0	60.8	3.6
전라북도	60.5	59.1	2.5
전주시	55.4	54.0	2.5
군산시	56.6	55.9	1.3
익산시	55.3	54.8	1.0
정읍시	59.1	58.2	1.5
남원시	65.5	64.8	1.1
김제시	63.6	63.1	0.7
완주군	62.2	61.3	1.6
진안군	69.3	69.2	0.3
무주군	69.0	68.6	0.7
장수군	74.8	74.1	0.9
임실군	64.2	63.4	1.3
순창군	67.2	66.7	0.7
고창군	67.1	66.7	0.6
부안군	69.6	68.8	1.2

자료: kosis.kr - 지역별고용조사

□ 국내 농업부문 취업자와 전라북도 농업부문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국내 농업부문 취업자는 152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72만명 감소함
- 전라북도의 경우 2013년 현재 13만 9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8만 4천명이 감소함

〈표 3〉 농업부문 취업자 수 변화(단위: 천명)

구분	2000	2005	2010	2013	증감량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00~'05	'05~'10	'10~'13
전국	2,243	1,813	1,566	1,520	-723	-32.2%	-4.2%	-2.9%	-1.0%
전북	223	166	156	139	-84	-37.7%	-5.7%	-1.2%	-3.8%

자료: 통계청(KOSIS) 행정구역/산업별 취업자

□ 전국 농촌지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은 일자리 증가율을 나타냄

- 2013년 현재 전국 농촌지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367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7만명이 증가함
 - 13년간 농촌지역 비농업 취업자는 47%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지역 40%증가에 비해 높음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일자리 증가율을 나타냄

- 2013년 현재 전라북도 농촌지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7만 3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4만 1천명이 증가함
- 13년간 전라북도의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증가율은 도시가 농촌에 비해 다소 높지만, 2010년 이후는 농촌의 연간증가율이 4.2%로 도시의 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변화(단위: 천명)

구분		2000	2005	2010	2013	증감량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00~'05	'05~'10	'10~'13
전국	도시	11,054	12,059	14,365	15,471	4,418	40.0%	1.8%	3.6%	2.5%
	농촌	2,495	2,724	3,251	3,668	1,172	47.0%	1.8%	3.6%	4.1%
전북	도시	337	333	411	449	112	33.3%	-0.2%	4.3%	3.0%
	농촌	132	132	153	173	41	30.9%	0.0%	2.9%	4.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농어촌지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권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부권의 취업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2000년에서 2013년간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율은 완주군이 8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익산시 30.5%, 김제시 28.8%의 순으로 중추도시권의 증가율이 높았음
-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남원시(5.3%)로 나타났으며, 장수군(6.6%), 진안군(11.0%)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에 비해 2010년 이후의 비농업 취업자 증가율이 대부분 시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부권의 경우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초반에는 대부분 시군의 비농업취업자수가 감소하거나 1%대 미만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주군만 비농업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추도시권 농촌지역의 경우 비농업 취업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2000~2013년)에도 비농업 취업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남권의 경우도 2000년 초에는 비농업취업자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으나, 최근(2000~2013년)에는 부안군 5.5%, 정읍시 4.0%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동부권의 경우 2000년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최근('00~'13년)에는 진안군과 남원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됨

〈표 5〉 시군별 농어촌지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변화(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3	증감량	증감율	연평균 증감률			
							'00~'05	'05~'10	'10~'13	
중추권	군산시	9,606	9,358	11,115	11,619	2,013	21.0%	-0.5%	3.5%	1.5%
	익산시	15,249	14,451	16,573	19,902	4,653	30.5%	-1.1%	2.8%	6.3%
	김제시	9,616	10,001	10,822	12,385	2,769	28.8%	0.8%	1.6%	4.6%
	완주군	21,193	25,374	31,586	40,187	18,994	89.6%	3.7%	4.5%	8.4%
서남권	정읍시	9,063	8,732	9,254	10,397	1,334	14.7%	-0.7%	1.2%	4.0%
	고창군	13,364	13,381	14,963	15,872	2,508	18.8%	0.0%	2.3%	2.0%
	부안군	15,040	13,659	16,064	18,886	3,846	25.6%	-1.9%	3.3%	5.5%
동부권	남원시	6,549	6,030	6,272	6,894	345	5.3%	-1.6%	0.8%	3.2%
	진안군	6,382	5,951	6,301	7,082	700	11.0%	-1.4%	1.1%	4.0%
	무주군	6,779	6,501	7,869	7,756	977	14.4%	-0.8%	3.9%	-0.5%
	장수군	5,324	5,179	5,973	5,676	352	6.6%	-0.6%	2.9%	-1.7%
	임실군	6,952	6,619	7,865	8,123	1,171	16.8%	-1.0%	3.5%	1.1%
	순창군	6,899	6,694	7,896	7,979	1,080	15.7%	-0.6%	3.4%	0.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3) 전라북도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

-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은 여전히 전라북도 농촌지역 비농업부문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
 - 완주, 임실 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제조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13년간 16421명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더 큰 폭으로 일자리가 증가함
 - 농촌지역 핵심 일자리였던 건설업의 경우는 최근에는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음
- 최근에는 보건·복지분야와 창조인력의 핵심산업인 전문기술서비스업 및 예술여가서비스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고용창출 산업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건·사회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210%), 최근 파견근로·인력알선 등의 활성화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일자리가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냄(687%)

- 지역특화연구소 설립,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으로 연구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전문기술서비스업(126%)이 증가하고, 예술공연 및 박물관·공원, 골프장 등의 증가에 따라 예술여가서비스업의 일자리도 크게 증가함(86%)

〈표 6〉 산업대분류별 취업자수 변화(2000~2013)

구분	2000	2005	2010	2013	증감량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00~'05	'05~'10	'10~'13
광업	889	638	662	868	-21	-2.4%	-6.4%	0.7%	9.5%
제조업	33,827	35,298	41,660	50,248	16,421	48.5%	0.9%	3.4%	6.4%
전기·수도사업	719	1,027	943	950	231	32.1%	7.4%	-1.7%	0.2%
하수·폐기물처리	505	912	1,030	1,249	744	147.3%	12.5%	2.5%	6.6%
건설업	5,458	6,462	8,606	7,542	2,084	38.2%	3.4%	5.9%	-4.3%
도소매업	21,283	17,142	17,368	20,072	-1,211	-5.7%	-4.2%	0.3%	4.9%
운수업	5,366	6,000	6,469	7,500	2,134	39.8%	2.3%	1.5%	5.1%
숙박·음식업	16,553	15,178	16,314	17,597	1,044	6.3%	-1.7%	1.5%	2.6%
출판·정보서비스업	2,004	1,902	1,794	1,614	-390	-19.5%	-1.0%	-1.2%	-3.5%
금융·보험업	5,003	3,903	4,005	4,346	-657	-13.1%	-4.8%	0.5%	2.8%
부동산임대업	1,054	1,146	1,304	1,679	625	59.3%	1.7%	2.6%	8.8%
전문기술서비스업	841	819	1,162	1,903	1,062	126.3%	-0.5%	7.2%	17.9%
사업지원서비스업	358	1,146	1,357	2,817	2,459	686.9%	26.2%	3.4%	27.6%
공공행정	9,850	9,763	10,913	11,440	1,590	16.1%	-0.2%	2.3%	1.6%
교육서비스업	12,965	14,295	14,967	15,627	2,662	20.5%	2.0%	0.9%	1.4%
보건·사회서비스업	4,633	6,030	12,996	14,338	9,705	209.5%	5.4%	16.6%	3.3%
예술여가서비스업	1,941	1,877	3,017	3,601	1,660	85.5%	-0.7%	10.0%	6.1%
협회·기타서비스업	8,767	8,392	7,986	9,367	600	6.8%	-0.9%	-1.0%	5.5%

1)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를 기준으로 2000년, 2005년 자료는 재 집계함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 농림업분야 사업체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전통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취업증가율이 전국농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전라북도 농촌의 취업자 증가율은 49%로 전라북도 도시의 28%에 비해 20% 정도 높았으나, 전국 농촌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도 전국 농촌에 비해 증가율이 30% 이상 낮았음

□ 최근 새로운 농촌고용 창출분야인 보건·복지분야와 창조산업분야는 전라북도 농촌의 취업증가율이 전국 농촌과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일자리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보건·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증가율이 전라북도 도시에 비해서는 35%, 전국농촌에 비해서는 24% 높았음

- 전문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전북 농촌이 전국 농촌에 비해서 6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지역특화연구소 유치 등의 성과가 타도보다 높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여가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예술여가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 농촌지역의 90%와 유사한 86%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7〉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율 비교(2000~2013)

구분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율('00~'13)				
	전북농촌 증감량	전라북도		전국	
		농촌	도시	농촌	도시
광업	-21	-2.4%	95.8%	-25.4%	-30.3%
제조업	16,421	48.5%	27.7%	58.8%	0.1%
전기·수도사업	231	32.1%	63.3%	49.8%	8.3%
하수·폐기물처리	744	147.3%	45.8%	94.2%	4.3%
건설업	2,084	38.2%	76.6%	75.7%	59.9%
도소매업	-1,211	-5.7%	10.0%	20.8%	16.0%
운수업	2,134	39.8%	21.1%	66.6%	32.6%
숙박·음식업	1,044	6.3%	15.7%	21.1%	29.6%
출판·정보서비스업	-390	-19.5%	-14.1%	-14.3%	45.8%
금융·보험업	-657	-13.1%	1.9%	-24.2%	19.6%
부동산임대업	625	59.3%	38.5%	62.1%	39.5%
전문기술서비스업	1,062	126.3%	86.0%	63.3%	169.9%
사업지원서비스업	2,459	686.9%	335.3%	439.6%	391.0%
공공행정	1,590	16.1%	-5.1%	20.2%	24.9%
교육서비스업	2,662	20.5%	42.1%	35.3%	59.6%
보건·사회서비스업	9,705	209.5%	174.6%	185.5%	171.8%
예술여가서비스업	1,660	85.5%	7.9%	89.8%	47.1%
협회·기타서비스업	600	6.8%	18.7%	14.7%	35.5%

1)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를 기준으로 2000년 자료는 재 집계함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 농림업분야 사업체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복지시설 부문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위)', '병원(6위)'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2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5위)' 등 자동차 관련 분야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매업과 목재, 의료 등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

- 일자리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종합소매업(1위)', 주점·비알콜음료점업(4위)', 섬유·의복·신발 소매업(5위)',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6위)' 등으로 지역 내수경제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음

〈표 8〉 전라북도 농촌에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부문(2000~2013년)

일자리 증가한 부문			일자리 감소한 부문		
산업	증감량	증감률	산업	증감량	증감률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178	428.1%	종합 소매업	-1923	-33.4%
자동차 부품 제조업	2959	207.5%	전자부품 제조업	-1169	-87.3%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743	670.7%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95	-38.2%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716	113.8%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914	-36.8%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2437	87.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50	-37.8%
병원	2166	332.7%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548	-15.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877	8938.1%	봉제의복 제조업	-514	-93.3%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68	219.3%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6	-28.1%
기타 식품 제조업	1535	53.8%	보험업	-455	-50.4%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1510	3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396	-68.6%
도로 화물 운송업	1492	82.1%	전기통신업	-287	-68.3%
스포츠 서비스업	1471	288.4%	나무제품 제조업	-270	-37.1%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366	135.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5	-69.0%
고등 교육기관	1353	106.5%	연료 소매업	-241	-12.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069	58.8%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239	-94.8%

1)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를 기준으로 2000년 자료는 재 집계함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 농림업분야 사업체는 제외함

3) 일자리가 증가한 분야는 증가율 50% 이상 부문 중 증감량 상위 15개 부문

4) 일자리가 감소한 부문은 감소율 -10% 이하 부문 중 감소율 상위 15개 부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도심권 지역은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도심권과 먼 농산촌 지역은 복지분야와 관광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냄

- 중추도시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증가함
- 서남권과 동부권 지역은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관련 일자리가 크게 증가함
-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음식·숙박시설 일자리가 증가함

〈표 9〉 시군별 일자리 증가 부문(2000~2013)

시군	일자리 증가 산업(증가량, 증가율)
군산시	고등교육기관(571명, 160%), 자동차부품제조업(447명, 358%) 거주복지시설 운영업(403명, 1919%),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264명, 112%)
익산시	도로화물 운송업(906명, 263%),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627명, 45%)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479명, 409%), 방직·가공사 제조업(405명, 13500%)
정읍시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729명, 2025%),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68명, 68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06명, 76%),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198명, 19800%)
남원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72명, 553%),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16명, 292%) 스포츠 서비스업(191명, 909%), 숙박시설 운영업(137명, 88%)
김제시	병원(405명, 675%),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17명, 217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216명, 2700%),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213명, 159%)
완주군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2474명, 90.3%), 자동차 부품 제조업(2098명, 40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1443명, 2405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1143명, 772%)
진안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25명, 792.7%), 산업 및 전문가 단체(239명, 2172.7%)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204명, 33.2%), 기타 식품 제조업(120명, 41%)
무주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45명, 884%),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160명, 16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164명, 44%), 음식점업(114명, 15%)
장수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98명, 482%), 스포츠 서비스업(186명, 1033%)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62명, 1620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16명, 1657%)
임실군	기타 식품 제조업(272명, 212%), 1차 철강 제조업(213명, 21300%)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209명, 47%),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01명, 410%)
순창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416명, 1040%), 병원(195명, 19500%) 기타 식품 제조업(172명, 39%),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147명, 170%)
고창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477명, 530%), 스포츠 서비스업(332명, 626%) 병원(264명, 143%), 음식점업(248명, 19%)
부안군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669명, 6690%),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661명, 12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514명, 1093%), 숙박시설 운영업(384명, 104%)

1)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를 기준으로 2000년 자료는 재 집계함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 농림업분야 사업체는 제외함
 3) 2000년 대비 2013년의 일자리 증가율 50% 이상 부문 중 상위 4개 부문 추출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2.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시사점

1) 농촌지역 고용변화의 시사점

- 농촌의 핵심 일자리였던 농업부문 취업자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비농업부문인 2차와 3차 산업부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농업부문의 취업자수의 감소와 비농업부문 고용의 지속적 증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짐
 - 비농업부문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하므로 농촌지역의 경제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2차와 3차산업 활동 촉진이 향후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함
 -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농촌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창업지원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므로 이들을 지역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농촌의 전통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비농업부문 핵심 일자리, 그러나 도시권과 떨어진 농산촌 지역의 경우 전통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정체되거나 감소
 - 원주, 임실 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제조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의 경우는 최근에는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음
- 최근에는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도심권과 떨어진 농산촌 지역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가 더 크게 증가함
 - 보건·복지산업은 농촌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임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지역내 자립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보건·복지분야는 농촌지역이 과소화되면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일자리이므로, 지역내 자생력을 가질수 있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창조인력의 핵심산업인 전문기술서비스업과 예술여가서비스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고용창출 산업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역고용승수 효과가 크고, 지역활력화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관광 및 문화산업 분야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정책이 필요함
 - 외국사례를 보면 문화산업 종사자의 지역내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농촌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가장 창조적인 인력인 문화부문 육성 필요
 - 지역내 지속적인 매력유지를 위해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일자리 유지가 매우 중요

2) 선진국 농촌고용 시사점

- 유럽지역의 고용추세를 보면 새로운 고용기회는 1980년 이후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고용 증가율이 도시보다 높음²⁾
 - 유럽 선진국 사례를 보면, 1980년 이후의 고용기회는 농촌성(rurality)이나 도시화(urbanization)의 정도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1990년 이후의 고용 증가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인구성장은 비농업 부문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되며, 재생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³⁾
 - 농촌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핵심 고용분야는 ‘농촌관광’, ‘재생에너지’,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예술서비스’, ‘공공 서비스(보건, 사회서비스 등)’ 임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농업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이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함

2) Terluin, Ida J. (2003).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regions of advanced countries: an over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theor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9(3), 327-344.

3) Baumgartner, D., Putz, M., & Seidl, I. (2013). What kind of entrepreneurship drives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an non-core regions? A literature review on empirical entrepreneurship research. *European Planning Studies*, 21(8), 1095-1127.

□ 지역사회 서비스(보건, 공공서비스 등) 부문이 가장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

- EU 사례⁴⁾
 - 농촌지역의 고용증가는 많은 부분 공공영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됨. EU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
 -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
- 캐나다 Saskatchewan 사례⁵⁾
 - 보건·복지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고용의 약 23% 차지하며, 고용기회의 46%가 이 부문에서 발생
 - 공공부문은 높은 임금 일자리가 없는 농촌 여성에게 특히 중요함
 -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외에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옴

□ 최근 재생에너지, 문화, 정보기술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됨⁶⁾

- 재생에너지
 - EU의 경우 1994년에서 2003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이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Biomass 생산에서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됨 : 6개 일자리/MW
- 정보기술서비스
 - 어메니티가 높은 농촌 거주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보기술서비스 일자리가 농촌지역에서 증가함
 - 재택근무비율을 보면(2005년) 핀란드는 약 17%(전업 10.8%, 부업 6.0%), 스페인은 3%(전업 2.3%, 부업 0.6%)로 이들 재택근무자의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
- 문화
 - 1990년 이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일자리가 농촌지역에 만들어짐
 -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Klien St. paul project(예술마을 조성), Lech International Art and Environment Symposium, Natural & Cultural Heritage Vorarlberg(목재공예)가 있음

- 4) Terluin, Ida J. (2001). Rural Regions in the EU. Exploring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289. Utrecht/Groningen.
- 5) Martz, D., & Sanderson, K. (2006). The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of the public sector to rural Saskatchewan.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1(2), 91-113.
- 6) Copus, A. K., Hall, C., Barnes, A., Dalton, G., Cook, P., Weingarten, P., ... & Johansson, M. (2006). Study on employment in rural areas. Study on Employment in Rural Areas.

3. 농촌일자리 창출 방안 : 복지·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창업활성화 과제

□ 농촌 창업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 창업시 법률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도시지역보다 더 큰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창업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농촌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현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창업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추진됨에 따라 중복성·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전북도(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인력개발원, 생물산업진흥원), 지자체(농업기술센터)
- 농촌창업 교육의 효과성·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도차원의 조정기능 활성화, 창업지원기관들간의 협의체계 구축, 역할분담 등 통합적 농촌창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유럽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창업프로그램, 가이드북, 창업지원 평가 등 창업지원시스템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EU의 제4차 농촌개발계획(2014~2020)의 3대 핵심전략 중 '경제활동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 전략은 농촌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임
- 미국은 농무성과 중소기업청이 협력하여 농촌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설립과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초기 사업안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부분의 농촌 소규모 사업체는 사업시작 3년 내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업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과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농촌지역 사업체의 경우 회계관리나 업무일지 작성,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 등 기본적인 사항도 관리되지 않는 사업체가 많음
 - 따라서 외부지원기관이나 멘토·인재관리 풀과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사업수행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보건·복지분야나 문화분야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더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음
 - 비영리조직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지역주민, 행정조직, 투자자, 고객 등)를 고려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체 운영에 따라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요구됨
 - 따라서 지역내 파트너십 구축, 펀딩활동,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귀농인 연계 창업활동 지원

- 외국 사례를 보면 귀농인은 지역내외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보, 지역 내 파트너십 활동, 중소기업체 창업을 통해 농촌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북아일랜드 농촌지역의 초소규모사업체(Microbusiness)의 절반은 농촌이주자에 의해 창업, 이들 초소규모사업체는 평균 2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⁷⁾
 - 북동부 영국지역은 농촌지역 전체 고용의 7%를 귀농인들이 창출하였으며, 이는 기존 농수산부문 일자리 창출 3.7%에 비해 2배 이상임⁸⁾
- 귀농인이 도시 근로자 연평균 가처분소득만큼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6.6ha의 비재배면적이 필요하지만, 2015년 현재 전라북도 농가당 경지면적은 1.8ha에 불과하므로, 농업경영을 통한 소득확보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귀농인이 영농 외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과 소규모 창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귀농인과 기존 농촌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 강화

- 농촌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지원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창업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운영할 전문경험을 가진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과 지역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농촌지역 공동체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매우 허술하고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창업 전에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창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예비 창업자 육성 정책을 도입하여 도의 창업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 도입
 - 단순한 계획서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창업을 위한 사전교육, 견학활동, 워크숍활동 등을 사전에 수행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7) Bowsorth, G. 2006. Counter-urbanisation and Job creation: Entrepreneurial In-Migration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8) Stockdale, E. and Findlay, A. 2004. Rural in-migration: A catalyst for economic regeneration. Global Change & Human Mobility-ICG-UK Glasgow.

2)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과제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인프라는 취약해 협동조합을 활용한 돌봄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매우 용이한 분야임
- 농촌지역의 높은 돌봄수요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농촌지역 유망분야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등록 가점제 도입하여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기존 복지기관이 제공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역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내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15년 현재 전라북도는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기관으로 돌봄 및 교육분야, 문화예술분야 등을 목적사업으로 13개소가 등록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확대할 예정
 - ※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 같은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표 10〉 전라북도 협동조합 운영 사회서비스 현황 및 일자리 창출 개수

지역	등록일	기관명	서비스 유형	일자리 창출 개수
완주군	14년 11월	공드림협동조합	노인정서지원서비스	3
전주시	14년 12월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3
전주시	14년 2월	사랑키움협동조합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7
전주시	14년 2월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3
전주시	13년 7월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13
완주군	14년 2월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11
완주군	14년 6월		노인정서지원서비스	5
완주군	15년 7월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4
군산시	14년 4월	협동조합늘배움터	노인정서지원서비스	3
전주시	14년 5월	전북교육협동조합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4
장수군	15년 8월	초록누리협동조합	청소년을 위한 푸드테라피	3
진안군	15년 7월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청소년지구시민학교	3

- 또한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혹은 협동조합 중 목적사업이 돌봄이나 교육, 재활과 상담 등 유망직종인 경우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등록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영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농촌지역 협동조합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개선

- 농촌지역의 부족한 복지지원에 지역의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서로 연계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개선은 지속적인 과제임
- 협동조합이 기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필요
- 또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제공인력이 부족해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40대 이상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3) 예술·창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과제

- 출판·방송·정보 분야를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창작·생활체육 분야 집중 육성
 - 공공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 문화복지서비스 인력, 공공예술단 및 무형유산보존회 설립에 따른 인력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스포츠 서비스업은 골프장·골프연습장의 인력창출이 두드러지며,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과 민간 체력단련실 인력 등이 증가했음
 - 유원지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감소(특히 전자게임장, 노래연습장 등)했으나, 분류가 안 된 새로운 유형의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문화복지 서비스, 공공문화시설 운영 및 기획, 문화예술교육 분야 확대
 - 문화이용권사업(2015년 전북예산 51억 8900만원)을 연계한 문화복지 서비스인력 창출
 - 생활문화센터(국정과제) 포함한 생활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운영·기획인력 배치
 - 지역 내 문화동호인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통한 '예술강사' 육성 및 활동 지원

- 가장 노동집약적인 '상설공연' 개발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 1000석 규모 공연장에서 뮤지컬 1회 공연을 위한 동원인력은 200여명일 정도로 공연산업은 생산-판매 과정에서 초기인력이 그대로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
 - 지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스토리를 연계하고, 지역관광장소(전통시장 등)와 연계한 공연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주민이 상설 운영하도록 함 (지역주민 예술단 설립)
 - (사례) 정선군은 5일장마다 <아리랑고개 너머>라는 상설공연을 1999년부터 진행함. 하동군은 화개장터와 최첨판덕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 상설 마당극 <최첨판덕 경사났네>를 공연

- 도시 예술인의 유입 전략을 통해 '예술(인)마을'을 조성
 - (사례) 작은 시골마을에 조성된 세계 최초의 책마을 헤이온와이(Hay-on-Wye)
 - 인구가 1900명에 불과하지만, 약 40개의 헌책방에서 1년에 약 100만권 이상의 책이 팔리고 있으며, 1988년부터 개최된 인문·문학테마의 <헤이페스티벌>에는 세계에서 수만 명이 방문함
 - 도시예술인·예술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 예술인마을을 조성함
 - (사례)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가·음악가·작가·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문화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인마을

- 농촌(세시풍속)체험, 캠핑, 예술카페 등 연계된 농촌 '문화창업' 유도
 - 최근 청년농부들에 의한 농촌체험과 문화·여가 연계형 농촌창업이 부상하고 있음
 - (사례) 젊은농부들(주): 농장체험, 캠핑 엮은 팜핑(Farmping·Farm+Camping) 개발, 농촌창업